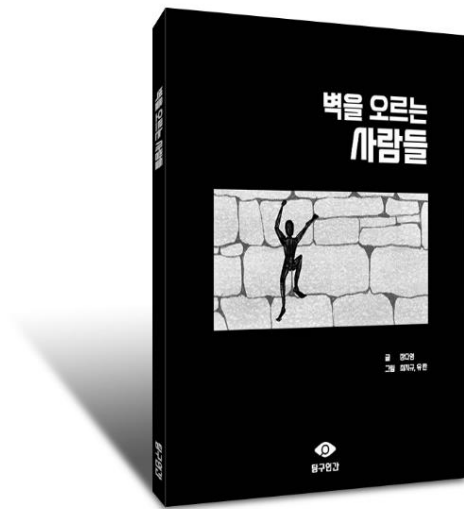


《벽을 오르는 사람들》



- 글: 장다영
- 그림 : 최지규, 유란
- 출판사 : 탐구인간
- 정 가 : 13,000원
- 출간일 : 2021.10.27
- 사이즈 : 190 x 235mm
- 페이지 : 96쪽
- ISBN : 979-11-971727-0-0 (03810)
- 분 야 : 소설(테마소설>어른들을 위한 동화)
- 판 수 : 1판 1쇄

1. 책 소개

계층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표현하다

계층 갈등이 점점 더 심화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어른들을 위한 그림책'

계층을 나누는 경계를 상징하는 '벽', 그리고 계층 상승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시각화한 '벽을 오르는 사람들'. 《벽을 오르는 사람들》은 계층 간의 갈등, 계층 내의 갈등, 세대갈등, 차별과 역차별 문제 등 계층의 존재로 인해 발생하는 사람들 간의 다양한 갈등과 문제를 벽이라는 상징을 활용하여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벽 바깥쪽 세상의 자원은 점점 고갈되어 가고 있다. 벽 바깥쪽 세상에서 가만히 있다가는 자원이 완전히 없어져서 굶어 죽게 되고 말 것이다. 자원이 풍부하다는 벽 안쪽 세상에 가기 위해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벽을 넘기 위해 노력한다. 벽 안쪽 세상에 가면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서. 하지만 과연 벽 안쪽 세상에 가면 정말로 행복해질 수 있을까?

작가는 은유와 상징을 통해 계층 사회를 단순화한 모형을 제시함으로써 사람들이 계층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의 본질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고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책을 펴냈다.

계층 사회에 대해 다룬 《벽을 오르는 사람들》은 '사람들 시리즈'의 첫 번째 편이다. '사람들 시리즈'는 《벽을 오르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인간의 본능과 삶 전반을 다루는 《줄을 당기는 사람들》, 자본주의에 대해 다루는 《저울 위에 오르는 사람들》, 유전과 환경에 대해 다루는 《뿌리로부터 뻗어나가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사람들 시리즈'는 인간과 세상을 단순화한 다양한 모형을 제시함으로써 사람들이 세상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의 본질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고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제작된다. 작가의 개인 블로그 (blog.naver.com/wowwow314)에서 '사람들 시리즈'의 초기 설정을 확인할 수 있다.

2. 저자 소개

장다영

인간과 세상을 단순화한 모형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인간에 대한 깊은 관심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를 공부하면서 세상을 보는 시야를 넓혀가는 것을 좋아한다. 현재 출판사 '탐구인간'을 운영 중이다. 탐구인간을 통해 인간과 세상에 대한 새로운 생각과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콘텐츠를 꾸준히 제작하고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3. 출판사 서평

계층 사회의 모습을 한눈에 정리하고 싶을 때 읽는 책

사람들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겹의 벽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설정은 분명히 비현실적이다. 하지만 이 비현실적인 설정은 현실의 계층 사회 문제를 그 어떤 설정보다도 더 현실적으로 담아낸다.

《벽을 오르는 사람들》에는 '벽'이라는 단어와 '벽'을 표현하는 그림이 반복해서 등장한다. 독자가

'벽'이라는 소재 자체에 압박감을 느낄 정도로 등장한다. 하지만 그 압박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책을 덮고 '벽 세상'에서 빠져나와도 현실 세상에서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벽을 오르는 사람들》이라는 작품이 완성되는 지점이다.

《벽을 오르는 사람들》에는 다양한 상징들이 등장한다. 각 상징들이 현실의 무엇을 나타내는지 현실과 비교해보는 것이 바로 이 작품을 읽는 하나의 재미 요소이다.

끊임없이 대립하고 갈등하는 사람들,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

《벽을 오르는 사람들》에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대립하고 갈등한다. 벽 안쪽 사람들과 벽 바깥쪽 사람들 간의 대립과 갈등, 벽 안쪽 사람들 간의 대립과 갈등, 벽 바깥쪽 사람들 간의 대립과 갈등이 계속해서 등장한다. 벽을 쌓는 일에는 협력이 가능하지만 벽을 넘는 일에 있어서는 대립과 갈등만이 존재할 뿐이다.

어쩌면 벽 바깥쪽 사람들끼리라도 완전하게 협력할 수 있다면 세상은 변화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벽의 존재로 인해 벽 바깥쪽 사람들은 완전하게 협력하지 못한다. 벽 안쪽의 자원을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는 경쟁자들을 제치고 자신만이 빨리 벽을 넘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벽의 존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은 자신보다 안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닿지 못한다. 자신과 같은 곳에 있거나 혹은 자신보다 바깥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향하게 될 뿐이다.

《벽을 오르는 사람들》은 현실의 계층 갈등 문제를 어떻게 하면 잘 풀어나갈 수 있을지 그 해결 방안에 대해 고민하도록 유도한다.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하더라도 그것을 찾기 위해 고민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4. 책 속으로(내용 발췌)

“엄마 아빠는 왜 지금보다 벽이 낮았을 때 벽을 넘지 못했어요? 그때 벽을 넘었더라면 나도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왜 이제 와서 저한테만 벽을 넘지 못한다고 화내시는 거예요? 벽은 옛날이랑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아졌어요. 저렇게 높은 벽을 어떻게 넘으라고요!”_28쪽

“옛날처럼 목숨을 위협당할 만큼 어려운 환경은 아니잖아. 그저 벽을 오르기만 하면 되는데 왜 오르지 못하니? 네가 벽을 넘지 못하는 건 네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야!”_29쪽

벽 안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모두 알고 있습니다. 벽을 넘는 것이 행복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벽을 넘어서 그 벽의 안쪽 세상으로 가도 그곳에는 넘어야 할 또 다른 벽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눈앞에 보이는 벽을 넘기 위해 노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지금까지 벽을 넘는 것만을 생각해 왔기 때문에 벽을 넘는 것 외에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벽을 넘으려고 하기보다는, 불안해지지 않기 위해서 벽을 넘으려고 했습니다._46쪽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벽을 넘어왔는데! 벽을 넘지 못한 무능하고 게으른 너희들과 자원과 땅을 나눠 써야 하다니, 이건 너무 불공평하잖아! 안 그래도 우리보다 안쪽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자원을 빼앗아서 자원이 부족한데, 우리의 노력은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지?”_65쪽

“그 정도 나눠 쓰게 된 것도 이해해 줄 수 없는 거야? 우리랑 자원을 조금 나눠 쓰게 된 게 그렇게 억울해? 게다가 우리가 무능하고 게으르다니! 너희들은 우리보다 체력이 좋게 타고났고 부모님이 지원을 잘해주셨으니까 벽을 넘을 수 있었겠지. 우리는 아니었다고! 그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_66쪽

벽 안쪽 세상에서 태어나 쪽 그곳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은 바깥 세상으로 나가려고 할 때 비로소 자신들이 얼마나 많은 벽으로 둘러싸인 세상 속에서 살아왔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평생 벽 바깥과 가까운 곳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해 왔었는데, 나도 꽤나 안쪽 세상에서 살고 있었구나... 나보다 더 바깥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았다니!’_79쪽